

글로벌 공급망 인사이트

Global Supply Chain Insight



채널 구독하기

Weekly 제124호
2024.10.17.(목)

I. 공급망 주간 이슈 Check!



주요 공급망 이슈

- 미국·물류** 美 하원의원, 항구 파업 중재를 위한 '공급망 보호법' 발의
- EU·자동차** 유럽 자동차 업계, 산업 위축 장기화 우려
- 일본·통상** 日, 탈중국 가속화... '24년 2분기 對中 설비투자액 16% 감소
- 멕시코·통상** 멕시코, '26년 USMCA 검토에 앞서 對中 수입 의존 완화 시도

주간 이슈 포커스

- 미국·에너지** 美, 동남아 4개국 수입 태양광 셀 대상 상계관세 예비 판정

원자재 뉴스 PLUS

- 철강** 인니, 韓 등 3개국 대상 석도강판 반덤핑 관세 재개·연장 확정

II. 월간 공급망



기업 관점의 공급망 - 종합 온실가스 배출량 관리·정보 플랫폼 구축의 필요성

III. 공급망 더 알아보기



2024년 4/4분기 수출산업경기전망조사(EBSI)

IV. 공급망 소식통



2024 수출 붐업코리아 WEEK (2024.10월 3주차~4주차)

소재부품장비산업 공급망센터

Korea Center for Global Industrial Supply Chain

공급망 주간 이슈 Check!

주요 공급망 이슈

작성 KOTRA 글로벌공급망실

미국, 물류 美 하원의원, 항구 파업 중재를 위한 '공급망 보호법' 발의

 10.4일(현지시간), 미셸 스틸(Michelle Steel)* 美 하원의원은 항구 파업으로 인한 경제적 피해 방지 및 파업 전 노사 간 중재를 허용하는 '공급망 보호법'을 발의

* 공화당 소속 한국계 美 연방 하원의원

- ▶ 동 법안은 ▲항구 파업 이전 국가조정위의 중재 허용, ▲국가조정위가 해상 고용주 및 노동자 대표로 구성된 국가해양조정위를 설립할 수 있는 권한 부여
- ▶ 지난 10.1일 美 동남부 항만의 대규모 파업의 잠정적 합의에도 불구하고, 향후 파업 시 조건 설정 및 고용주와 노동자 간 협상 결렬을 대비한 중재 절차가 마련될 필요성 대두
- ▶ 미셸 의원은 광범위한 항구 파업 발생에 따른 제품 부족 및 가격 인상 등 공급망 리스크로부터 美 경제를 보호하기 위한 법안 마련의 중요성 피력

핵심 키워드

물류 파업

공급망 보호법

출처: 워싱턴 경제통상 브리핑 73호('24.10.08) 등 언론보도 KOTRA 워싱턴무역관 종합

EU, 자동차 유럽 자동차 업계, 산업 위축 장기화 우려

 10.2일(현지시간) 현지언론에 따르면 폭스바겐과 스텔란티스를 포함한 유럽 자동차 제조업계는 유럽 자동차 산업의 침체 장기화를 전망하며 수익률 둔화 우려

- ▶ 동 업계는 코로나 팬데믹 이후 수요 회복으로 생산량이 2% 이상 증가할 것으로 기대했으나 ▲중국 내 경쟁 심화, ▲유럽 내 전기차 전환 지연 등의 요인으로 이익 감소
- ▶ EU 탄소배출 규정에 따라 '25년부터 자동차 CO2 배출 목표가 기존 95g/km에서 93.6g/km로 강화되어, 전기차 판매를 확대해야 하나 전기차 자체의 수요부진에 직면

핵심 키워드

전기차

탄소배출 규정

출처: EU 경제통상 브리핑 65호('24.10.09) 등 언론보도 KOTRA 브뤼셀무역관 종합

일본, 통상 日, 탈중국 가속화... '24년 2분기 對中 설비투자액 16% 감소

- 10.4일(현지시간) 日 경제산업성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 日 기업의 중국 內 설비투자액은 해외투자 총액의 13.6%로 5년 전 대비 5%p 감소
- 일본의 對中 투자액은 8년 만에 對유럽 투자액보다 낮은 수치를 기록한 반면, 對북미 투자 비중은 5년 전 대비 10%p 증가한 36.8%를 기록
- 현지 언론은 對中 투자 감소의 이유를 日 자동차 제조업의 부진에서 기인한다고 분석하였으며, 실제로 닛산·혼다 등은 중국 內 공장 폐쇄 및 생산량 감축 등을 검토 중
- JETRO에 따르면 중국에 진출한 日 제조기업의 53%가 中 경기둔화에 따른 경쟁 심화를 어려움으로 꼽았으며, 동남아·인도 등 대체처를 모색 중

핵심 키워드

탈중국

해외투자

출처: 니혼게이자이신문('24.10.04), 일본 경제 브리핑('24.10.07) 등 언론보도 KOTRA 도쿄무역관 베이징무역관 종합

멕시코, 통상 멕시코, '26년 USMCA 검토에 앞서 對中 수입 의존 완화 시도

- 10.8일(현지시간) 현지언론에 따르면 멕시코 정부는 '26년에 있는 USMCA* 검토에 앞서 중국產 수입품을 자국 제품으로 대체하는 정책을 협의 중이라고 보도
- * 북미자유무역협정(United States-Mexico-Canada Agreement, USMCA):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을 개정한 협정으로 6년마다 재검토되며 ▲美 수출 자동차의 무관세 조건 강화, ▲非시장 경제(중국 등)과 자유무역협정 추진시 탈퇴권 보장 ▲환율조작 금지 등이 포함
- 멕시코 정부는 역내 다국적 기업이 아시아에서 수입하고 있는 제품·부품 수입을 축소하고, 자국 제품으로 이를 대신함으로써 북미 중심 공급망 형성 및 美 시장 접근성 확대를 기대
- 현지 언론은 '26년 USMCA 검토에서 중국產 제품의 우회 수출 문제와 북미 원산지 요건 강화 등이 다뤄질 것이 유력하다고 판단한 멕시코 정부의 선제적 행동으로 분석

핵심 키워드

USMCA

우회수출

출처: 월스트리트저널('24.10.08), 워싱턴 경제통상 브리핑 73호('24.10.08) 등 언론보도 KOTRA 워싱턴무역관 종합

주간 이슈 포커스

작성 KOTRA 글로벌공급망실

미국, 에너지 美, 동남아 4개국 태양광 셀 수입 대상 상계관세 예비 판정

10.1일(현지시간) 美 상무부는 동남아 4개국*에서 생산된 태양광 셀 수입에 대한 상계관세 조사 예비 판정을 발표

* 태국·베트남·말레이시아·캄보디아

상무부는 조사 기간('23.1.1일~12.31일) 동안 상기 국가에 소재한 기업에 부당한 보조금이 지급됐다고 판단, 국별 상계관세율을 예비 판정

예비 판정 내용

동 상계관세 일부는 불리한 가용 정보(AFA)*에 기반하여 판정하였으며, 美 상무부는 내년 2.10일까지 조사에 대한 최종 판정 예정

* 불리한 가용 정보(Adverse Facts Available, AFA): 美 정부가 요청한 자료가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할 경우, 당국이 기업에 최대한 불리하게 관세를 적용하는 조항

국가명	기업명	잠정 상계관세율
태국	Trina Solar Science & Technology (Thailand) Ltd.	0.14%
	Taihua New Energy (Thailand) Co. Ltd.	34.52%*
	Sunshine Electrical Energy	
	그 외 기업	23.06%
베트남	Boviet Solar Technology Co., Ltd	0.81%
	JA Solar Vietnam Company Limited / 그 외 기업	2.85
	GEP New Energy Viet Nam Company Limited	
	Vietnam Green Energy Commercial Services Company Ltd.	292.61%*
말레이시아	HT Solar Vietnam Limited Company / Shengtian New Energy Vina Co., Ltd	
	Jinko Solar Technology Sdn. Bhd.	3.47%
	Hanwha Q Cells Malaysia Sdn. Bhd.	14.72%
	Baojia New Energy / Pax Union Resources / SunMax Energy SDN BHD	123.94%*
캄보디아	그 외 기업	9.13%
	Solarspace New Energy (Cambodia) Co., Ltd.	8.25%
	Jintek Photovolataic Technology Co., Ltd / ISC Cambodia	68.45%
	그 외 기업	8.25%

* 불리한 가용정보(AFA) 적용 관세율

핵심 키워드

우회수출

상계관세

출처: 美 상무부 보도자료('24.10.01), 워싱턴 경제통상 브리핑 73호('24.10.08) 등 언론보도 KOTRA 워싱턴무역관 종합

◆ 원자재 뉴스 PLUS

작성 KOTRA 글로벌공급망실 참고 한국광해광업공단 KOMIS, 한국석유공사 페트로넷

철강 인니, 韓 등 3개국 대상 석도강판 反덤핑 관세 재개·연장 확정

인니 정부는 올해 2월 만료된 석도강판*에 대한 反덤핑 관세를 韓·中·대만 등 3개국에 10.14일부터 '29년까지 재개 및 연장하기로 발표

* 부과 대상 품목 HS코드 : 7210.1210 / 7210.1290

한국의 동 품목(7210.1210) '23년 對인니 수출액은 5,500만 달러로 美·태국에 이어 수출액 3위 차지

주간 원자재 가격 동향 (10월 2주)

비철금속 | 칠레 동 생산 실적 개선으로 동 가격↓, 주요 거래소 재고량 증가로 니켈 가격↓

품목	연평균 (U\$/톤)			주간평균 (U\$/톤)		
	'23년	'24.1~9월	전년비(%)	10.1주	10.2주	전주비(%)
동	8,478	9,133	7.7	9,792	9,618	△1.8
니켈	21,474	17,089	△20.4	17,515	17,467	△0.3
아연	2,647	2,687	1.5	3,119	3,073	△1.5

* 자료원: 한국광해광업공단 KOMIS 등

(동) 칠레 동 생산 실적 개선으로 수급 상황이 완화되며 전기동 가격 하방압력 발생

메이저 BHP社의 칠레 Escondida광산과 칠레 국영기업 Codelco社의 8월 동 생산량은 각각 10만 5,000톤, 12만 5,000톤으로 전월 대비 각각 15.5%, 10% 증가

(니켈) 주요 거래소 재고량 증가세 및 공급과잉 지속 우려에 따른 가격 하방압력 발생

10월 2주차 런던금속거래소(LME)의 니켈 재고량은 132,192톤으로 전주 대비 0.7% 증가

철강 | 中 경기부양책 기대치 하회로 철광석 가격↓

품목	연평균 (U\$/톤)			주간평균 (U\$/톤)		
	'23년	'24.1~9월	전년비(%)	10.1주	10.2주	전주비(%)
연료탄	173.32	135.11	△22.0	144.10	150.09	4.2
원료탄	295.71	254.47	△13.9	204.05	205.35	0.6
철광석	119.32	112.14	△6.0	108.5	105.68	△2.6

* 자료원: 한국광해광업공단 KOMIS 등

** 연료탄(호주 뉴캐슬 FOB 기준, ICE 기준), 원료탄(호주 FOB 기준, Premium Low Vol), 철광석(중국 주요항 CFR 기준, 62% 분광)

(철광석) 中 국가발전개혁위가 발표한 경기부양책 규모가 시장기대를 하회하며 가격 하방압력 발생

(유연탄) 이스라엘-이란 간 지정학적 긴장 고조에 따른 유가 상승이 에너지원 가격 상승 견인

주간 원자재 가격 동향 (10월 2주)

희소금속 | 주요국 공급 차질로 탄산리튬 가격 ↑

품목	연평균 (U\$/톤)			주간평균 (U\$/톤)		
	'23년	'24.1~9월	전년비(%)	10.1주	10.2주	전주비(%)
페로망간	1,266	1,221	△3.5	-	1,170	-
탄산리튬	35,697	13,203	△63.0	-	10,763	-
수산화리튬	37,972	12,205	△75.9	-	10,109	-
코발트 (U\$/lb)	17.82	16.58	△6.9	15.50	15.50	-
산화 디스프로슘 (희토류)	330,258	263,827	△20.1	-	258,500	-
산화 네오디뮴 (희토류)	78,383	54,577	△30.4	-	62,425	-

* 자료원: 한국광해광업공단 KOMIS 등
** 페로망간(중국 FOB 75%), 탄산·수산화리튬(중국 내수가격, 99.5%min, 56.5%min), 코발트(유럽 in-warehouse 99.8%min), 산화디스프로슘(중국 FOB 99.5%min), 산화네오디뮴(중국 FOB 99.5~99.9%)

- ❏ (탄산리튬) 배터리 부문 수요 개선 및 주요국 공급 차질로 가격 상승세
- ❏ (수산화리튬) 충분한 원료공급 대비 전기차 캐즘 등 단기 수요부진으로 시장 약세 지속

에너지 | 美 허리케인 상륙, 이란-이스라엘 지정학적 긴장 고조 등으로 원유 가격 ↑

품목	연평균 (U\$/bbl)			주간평균 (U\$/bbl)		
	'23년	'24년	전년비(U\$/bbl)	10.1주	10.2주	전주비(U\$/bbl)
두바이유	82.10	81.38	△0.72	74.32	77.92	3.60
브렌트유	82.17	81.62	△0.55	74.98	78.52	3.54
WTI	77.60	77.43	△0.17	71.24	74.95	3.71

- * 자료원: 한국석유공사 페트로넷 등
- ❏ (원유) ▲美 허리케인 상륙에 따른 휘발유 품귀 현상, ▲이란-이스라엘 간 지정학적 긴장 고조 등으로 유가 상승압력 발생
 - 🔍 10.9일(현지시간) 플로리다주에 상륙한 허리케인 Milton의 영향으로 휘발유 등을 미리 구매하려는 수요가 높아지며 휘발유 품귀 현상 발생
 - 🔍 러시아 당국은 국내 제품 공급 및 가격 안정을 위해 겨울철 디젤 수출 제한*을 검토 중
 - * 통상 러시아는 겨울철 디젤을 거의 수출하지 않으나, 내수용으로 지정된 제품 일부를 비생산자가 수출할 수 있음

월간 공급망

기업 관점의 공급망 - 종합 온실가스 배출량 관리·정보 플랫폼 구축의 필요성

작성 딜로이트 안진회계법인 Assurance ESG 그룹 심홍석 이사

개요

- 그동안 국내 기업들에게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을 위한 관리 시스템 구축은 한국 정부의 온실가스 배출 규제에 대한 대응의 일환으로 다량의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기업들에게만 해당하는 영역으로 여겨져 왔다. 또한, 정부는 온실가스 목표관리제도가 시작된 '10년 이후로 규제 대응에 취약한 중소·중견기업을 대상으로 효율적인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있다.

[표 1] 국내 온실가스 배출 규제 지정 대상

구 분	업체 기준	사업장 기준
온실가스 목표관리제도	50,000tCO ₂ -eq	15,000tCO ₂ -eq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도	125,000tCO ₂ -eq	25,000 tCO ₂ -eq

-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 덕분에 온실가스 배출 규제 대상 기업들은 정부 지원과 규제 대응을 통한 학습을 통해 각자 기업들의 특성에 맞는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
- '15년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제21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에서 산업화 이전 대비 지구 평균기온 상승을 2100년까지 2℃보다 상당히 낮은 수준으로 유지키로하고, 1.5℃이하로 제한하기 위한 노력을 추구'하는 파리협정을 채택하였다.
- 이후, 유럽연합(EU)은 파리협정의 적극적인 이행을 위해 유럽연합의 포괄적 기후 및 환경 전략으로 '50년까지 탄소중립을 목표로 하는 '유럽 그린 딜(European Green Deal)'을 2020년에 승인하며, 기업의 전 과정 온실가스 배출량을 관리하고 감축을 유도하기 위한 제도 CSRD(Corporate Sustainability Reporting Directive), CBAM(Carbon Border Adjustment Mechanism), CSDDD(Corporate Sustainability Due Diligence Directive), EU Taxonomy 등을 순차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 유럽연합의 규제제도별 요구하는 온실가스 배출량 관리 범위를 기업의 가치사슬 관점에서 재정리하면 다음의 표와 같다.

[표 2] 국내 온실가스 배출 규제 지정 대상

구 분	업스트림 (Upstream)	기업 자체운영 (Own Operation)	다운스트림 (Downstream)
기업지속가능성보고지침(CSRD)	●	●	●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	●	○
공급망 실사지침(CSDDD)	●	●	●
EU 탄소노미*	◐	◐	◐

* 각 산업군의 경제활동 특성에 따라 요구되는 온실가스 배출량 관리 범위가 상이

- EU의 전 과정 온실가스 배출 관리 트렌드와 더불어 글로벌 기업들 또한, 공급망의 온실가스 배출량 관리와 감축을 요구하고 지원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 (애플) '30년까지 전체 제품과 공급망에서 탄소중립을 달성하겠다는 목표를 세우고 협력사들에게 재생에너지 사용과 온실가스 배출량 보고를 요구하고 있다. 이를 지원하고 위해 애플은 1억 달러 규모의 '녹색 채권(Green Bond)'을 발행하여 협력사의 친환경 프로젝트를 지원하고 있다.
 - (월마트) '프로젝트 기가톤(Project Gigaton)'을 통해 협력사들이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온라인 툴킷과 가이드라인을 제공하고, 성과를 달성한 협력사들에게는 기가톤 구루(Gigaton Guru)로 지정하여 마케팅 지원과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다.
 - (BMW) 협력사들의 재생에너지 전환을 지원하기 위해 재생에너지 구매 협약(PPA) 체결을 돕고, 금융 지원과 기술 컨설팅을 제공하고 있다. 또한, 협력사들의 온실가스 배출량 관리를 위해 'Online-Assessments와 Onsite-Assessment' 프로세스를 구축하여 공급망의 책임관리를 강화하고 있다.
- 이렇듯 기존에는 다량의 온실가스를 배출 중인 기업에 한해 온실가스 배출 관리를 하고자 하는 수요가 있었다면, 글로벌 공급망 비즈니스 시대에는 경제 활동을 영위하고 있는 모든 기업에 온실가스 배출을 관리하고 감축할 수 있도록 요구가 확대되고 있는 것이다.
- 특히, 기업들에게 기후변화 관련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는 필자의 입장에서 그동안 정부 규제 대상이 아니면서, 정부 지원의 사각지대에 있던 중소·중견 기업 담당자들이 어려움을 느끼고 있는 온실가스 배출 관리 및 감축에 대한 의견을 종합해 보면 다음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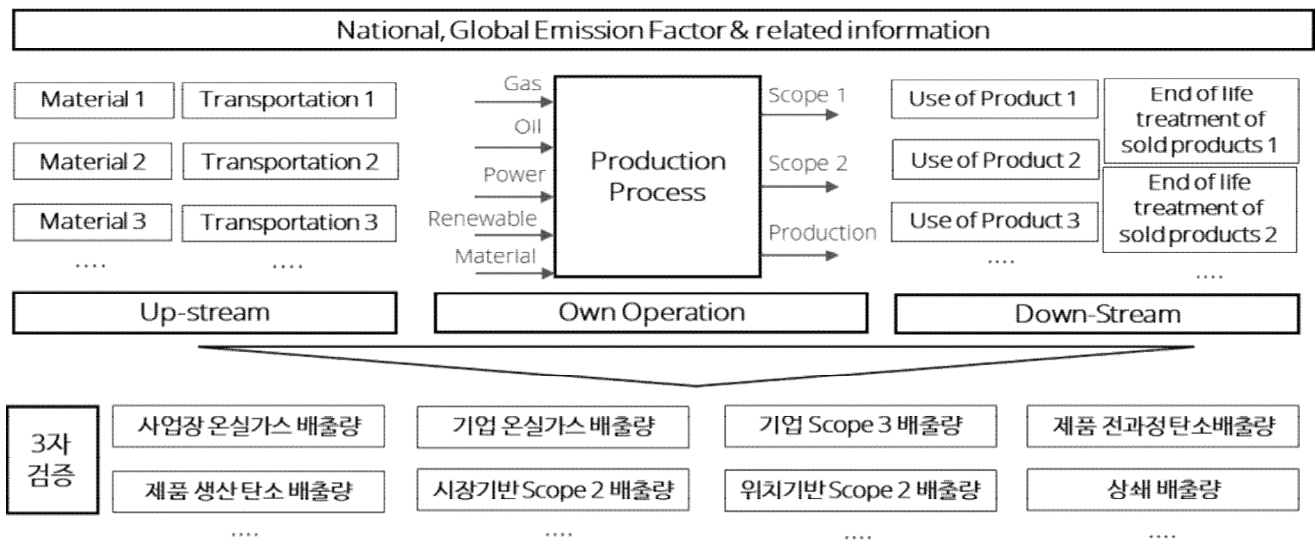
[표 3] 온실가스 배출 관리·감축 대응 관련 기업 애로사항

구 분	유 형	주요 내용
재정적 부담	초기 투자 비용 부담	시스템 구축을 위한 추자 및 전문 인력 채용에 대한 비용 부담
	운영 비용 부담	지속적인 데이터 관리와 업데이트를 위한 운영 비용 발생
전문성 부족	전문 인력 부족	온실가스 배출량 관리에 대한 전문 인력 채용에 대한 어려움
	교육 및 훈련 기회 부족	중소기업은 대기업에 비해 직원 교육에 대한 투자 여력이 제한적
기술적 어려움	데이터 수집의 복잡성	생산 공정에서 필요한 데이터를 수집하는 방법론의 복잡성

기술적 어려움	표준화의 어려움	배출량 관리를 요구하는 주체에 따라 관리 지표가 상이함
문화적 인식 부족	경영진의 인식 부족	경영진에게 온실가스 관리의 중요성을 인식시키는 당위성의 어려움
	직원 참여 저조	조직 문화성 환경 이슈에 대한 직원들의 관심과 참여가 저조

- ▶ 점점 복잡해지고 있는 글로벌 규제와 고객사의 온실가스 관리 요구를 글로벌 공급망 비즈니스에 위치한 중소·중견기업에 조금 더 세밀한 지원책이 필요한 시점이다. 정부에서는 글로벌 온실가스 관리 이슈를 종합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통합 온실가스 관리·정보 플랫폼을 개발하고 표준 기능에 대한 정의와 관련 정보를 과감하게 제공할 필요성이 있다. 즉, 요구되는 온실가스 관리 지표별로 산정하는 프로세스를 직접 체험하고 각 기업의 공정 및 특성에 맞게 자체적으로 수정할 수 있는 유연한 플랫폼이 필요하다. 정부의 온실가스 관리·정보 플랫폼은 단기 성과를 위해 짧은 시간 안에 구축하기보다는 ‘오픈 플랫폼’ 형태로 기업들이 직·간접적으로 사용하고 산출된 온실가스 지표의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는 제3자 검증 기능을 플랫폼 내부에 구현하여, 신뢰성 있는 데이터를 쌓아 갈수록 플랫폼의 확장 기능은 무궁무진하다.

[그림 1] 종합 온실가스 관리·정보 플랫폼의 개념



- ▶ 마지막으로, 정부 이외에 대기업이 중소·중견 협력사에게 지원해 줄 수 있는 역할도 존재한다. 그간 대기업은 정부 규제 및 글로벌 고객사의 요구 대응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 온실가스 관리에 대한 Know-How가 축적되어 있으며, 협력사에게 요구하는 온실가스 지표 정보도 산출되는 계산식 또는 프로세스가 계획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대기업의 협력사 지원 방안은 다음과 같이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이다.

[표 4] 대기업의 공급망 지원 방안

구 분	유 형	주요 내용
기술 및 교육 지원	협력사 역량 강화 프로그램	대기업 내부 전문가를 파견하여 현장에서의 기술 지원 실시 등
	공동 워크숍 및 세미나 개최	협력사 지식 공유를 위한 워크숍·세미나 개최 통해 최신 정보 공유
재정적 지원	시스템 구축 비용 지원	협력사의 시스템 구축 비용을 지원하거나 공동 투자 모델 제안
	인센티브 제공	우수 협력사에 구매 물량 확대 또는 계약 기간 연장 등 혜택 제공
공동 기술개발 및 정보 공유	공동 연구개발(R&D)	대기업과 협력사가 함께 탄소 감축 기술을 개발하고 적용
	데이터 공유 플랫폼 구축	공급망 內 탄소배출량 데이터의 효율적 관리가 가능한 플랫폼 제공
문화적 인식 부족	ESG 경영 철학 공유	대기업의 ESG 경영 철학 및 우수사례를 협력사들과 공유하여 전체 공급망의 문화적 변화 도출

공급망 더 알아보기

2024년 4/4분기 수출산업경기전망조사(EBSI)

작성 한국무역협회 동향분석실

2024년 4/4분기 수출산업경기전망지수(EBSI)는 103.4로 전분기의 긍정적 흐름이 유지될 것으로 전망됐다. 2분기부터 세 분기 연속 기준선 100을 상회해 수출 호조에 대한 기대가 여전히 우세하며, 지난 분기에 이어 선박(146.7), 반도체(135.2)의 EBSI가 높게 나타나 수출 성장세를 견인할 전망이다. 주요 수출 애로 요인은 수출대상국의 경기 부진, 원재료 가격 상승 등으로 조사되어, 주요국 금리·통상 동향 등 대외 불확실성 요소를 면밀히 파악하고 신속히 대응해야 한다.

1. 2024년 4/4분기 수출경기전망

2024년 4/4분기 수출산업경기전망지수(EBSI)*는 103.4로 수출 호조세가 이어질 전망

* 수출산업경기전망지수(Export Business Survey Index; EBSI) :

- 다음 분기 수출 경기에 대한 국내 수출기업들의 전망을 나타내는 지표
- 수출여건이 전분기와 유사할 것으로 기대되면 100, 전분기 대비 개선(악화) 예상시 100보다 큰(작은) 값을 가짐

11개월 연속 수출이 증가('23.10~'24.8)하는 가운데 EBSI가 세 분기 연속 기준선 100을 웃돌아, 수출 호조에 대한 기대감이 여전히 우세한 것으로 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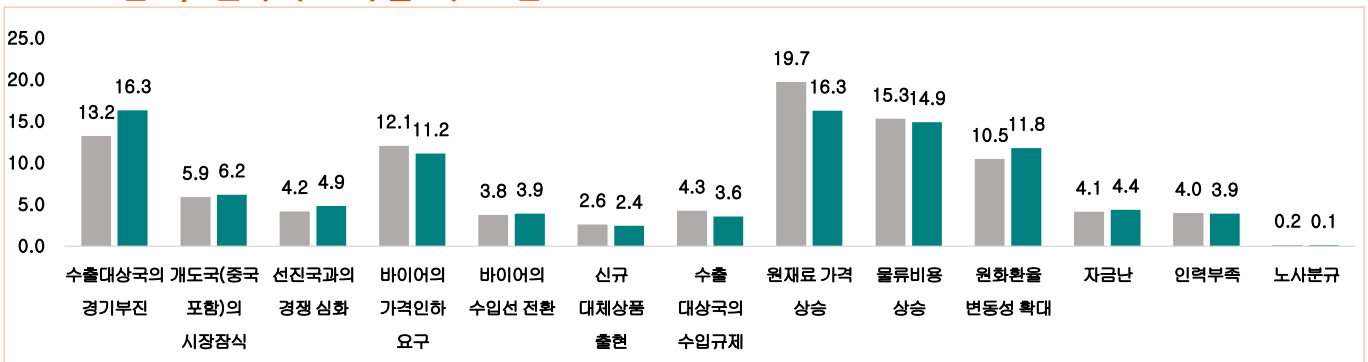
* 분기별 EBSI : ('23.4Q) 90.2 → ('24.1Q) 97.2 → (2Q) 116.0 → (3Q) 108.4 → (4Q) 103.4

* 월별 수출 증가율(전년동기비%) : ('23.10) 4.9 → (12) 5.0 → ('24.2) → (2) 4.4 → (4) 13.6 → ('24.8) 11.4

수출대상국의 경기 부진(16.3%) 및 원재료 가격 상승(16.3%) 등이 주요 수출 애로요인

수출대상국의 경기 부진(+3.1%p)에 대한 우려가 전분기 대비 심화된 반면 원재료 가격 상승(-3.4%p), 바이어의 가격인하 요구(-0.9%p) 부담은 다소 완화

2024년 4/4분기 주요 수출 애로요인



자료 :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

2. 품목별 수출산업경기전망지수(EBSI)

 15개 품목 중 반도체, 선박을 비롯한 8개 품목은 2024년 4분기 중 수출 여건이 개선될 전망이나, 철강·비철금속, 석유제품 등은 악화 예상

- (선박) 환경 규제에 따른 선박 교체 수요 증가 및 기존 수주 물량의 인도 확대에 호황 지속
- (반도체) AI 반도체 매출 확대 기대가 유지되고 여타 IT품목 수요도 견조하게 증가
- (철강·비철금속) 중국발 공급과잉이 지속되며 수출단가 하락에 따른 불안감 확대
- (석유제품) 중동 지역 지정학적 리스크 고착화 및 국제유가 하락으로 수출 경기 부진 우려

2024년 4/4분기 세부품목별 수출산업경기전망지수(EBSI)

구분	기준	해당 항목
개선	100 이상	선박(146.7), 반도체(135.2), 생활용품(114.6), 화학공업(113.8), 플라스틱·고무·가죽제품(109.1), 의료·정밀·광학기기(104.7), 전기·전자제품(104.2), 농수산물(103.7)
악화	100 미만	무선통신기기·부품(99.6), 자동차·자동차부품(98.7), 가전(97.5), 섬유·의복제품(89.1), 기계류(79.6), 석유제품(70.6), 철강·비철금속제품(66.2)

자료: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

3. 항목별 수출산업경기전망지수(EBSI)

 10개 항목 중 설비가동률, 수출상품 제조원가 등 6개 항목에서 수출 여건 호전

- 11월 미 대선을 앞두고 통상 리스크가 커지면서 수입규제·통상마찰(83.1) 악화 응답이 두드러짐
 - ▶ 특히 자동차·자동차부품(28.5)와 가전(53.9)에서 수입규제 및 통상마찰에 대한 우려가 가장 크게 나타남

2024년 4/4분기 세부항목별 수출산업경기전망지수(EBSI)

구분	기준	해당 항목
개선	100 이상	설비가동률(120.7), 자금사정(115.1), 수출상품 제조원가(111.9), 수출상담·계약(105.5), 원부자재 수급·조달(105.4), 수출채산성(102.7)
악화	100 미만	수출대상국 경기(97.8), 수출 단가(93.0), 국제물류(90.8), 수입규제·통상마찰(83.1)

자료: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

출처: 『2024년 4/4분기 수출산업경기전망조사(EBSI)』 보고서, 한국무역협회

공급망 소식통



산업통상자원부 | kotra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수출업코리아
WEEK



2024 수출 북업코리아 WEEK

2024.10월 3,4주



KIAA-GTT SHOW
Korea Auto Industry & Global Transport Week

TECH INSIDE SHOW
2024 소부장부품 기술대전

KOREA 2024 METAL WEEK
금/흑/합/합/합

THE AI SHOW 2024
AI Show in Korea

CPNEX KOREA 2024
한국국제건설기계전

4EROTEC
2024

K-MES BUSAN 2024

SEDEX 2024

ASIA CONCRETE EXPO KOREA

ROBOT WORLD 2024
ROBOT WORLD 2024

DMTS
2024

kcarbon

OFFSHORE KOREA 2024

KES2024

2024 고령 드론·드론항공 모빌리티 박람회
DOYANG DRONE UAM EXPO 2024

대한민국 ICT융합 엑스포
ICT Convergence Expo Korea 2024

DIFA
Digital Infrastructure & Security Expo

글로벌 경제지표 ['24.10.15일 (화)]

작성 산업통상자원부 산업공급망정책과

환율

구 분	'22년	'23년	'24.8말	10/11	10/14	10/15	전일비	전년말비
₩/U\$	1,264.50	1,288.00	1,336.00	1,349.50	1,355.90	1,361.30	0.40	5.69
선물환(NDF, 1월물)	1,265.30	1,286.80	1,333.30	1,347.20	1,353.60	1,359.10	0.41	5.62
₩/CNY	181.44	181.37	187.56	190.75	191.78	191.25	△0.28	5.45
₩/¥100	945.56	912.25	921.19	906.80	908.66	911.00	0.26	△0.14
¥/U\$	133.73	141.19	145.03	148.82	149.22	149.43	0.14	5.84
U\$/EUR€	1.0617	1.1105	1.1077	1.0937	1.0929	1.0889	△0.37	△1.95
CNY/U\$	6.9630	7.1092	7.0934	7.0755	7.0771	7.1170	0.56	0.11

* '23년 평균 환율: (₩/U\$) 1305.9원, (₩/¥100) 931.6원 / '24년 평균 환율('24.1.1일~현재): (₩/U\$) 1352.6원, (₩/¥100) 895.6원

유가·원자재 (원유 \$/배럴, 철광석·비철금속 \$/톤)

구 분	'23년 최저(해당일)	12/29('23년)	10/14	10/15	전일비	'23년 최저비	전년말비
원유(두바이)	70.31(3.20일)	77.08	77.63	74.3	△3.3	4.0	△2.8
					△4.3%	5.7%	△3.6%
철광석	97.35(5.24일)	140.50	107.50	105.25	△2.3	7.9	△35.3
					△2.1%	8.1%	△25.1%
비철금속	구리	7,812.50(10.5일)	8,476.00	9,516.00	△114.5	1589.0	925.5
					△1.2%	20.3%	10.9%
	알루미늄	2,068.50(8.21일)	2,335.50	2,566.00	△44.0	453.5	186.5
					△1.7%	21.9%	8.0%
	니켈	15,885.00(11.27일)	16,300.00	17,335.00	△160.0	1290.0	875.0
					△0.9%	8.1%	5.4%

반도체

구 분	'21년	'22년	'23.12월	'24.8말	'24.9말	10/10	10/11	10/14	10월(~14)
D램(8G) 현물가(\$ 기간평균)	3.99	3.07	1.74	1.98	1.96	1.93	1.93	1.92	1.93
(%, YoY)	29.9%	△23.0%	△14.8%	35.8%	33.0%	25.8%	25.3%	23.8%	24.5%
낸드(128G) 현물가(\$, 기간평균)	6.55	7.25	6.38	6.32	6.71	6.77	6.77	6.75	6.76
(%, YoY)	14.7%	10.7%	△2.3%	0.0%	6.1%	5.7%	5.7%	5.4%	5.6%

SCFI (상하이컨테이너운임지수)

구 분	12/30('22년)	12/29('23년)	9/20	9/27	10/11	전주비(9/27)	전년말비
SCFI	1107.55	1759.57	2366.24	2135.08	2062.57	△3.4%	17.2%

BDI (Baltic Dry Index, 발틱운임지수)

구 분	12/23('22년)	12/22('23년)	1/1	10/9	10/10	10/11	10/14	전주비(10/11)	전년말비
BDI	1515	2094	1308	1799	1790	1809	1814	0.3%	△13.4%

소재부품장비산업 공급망센터

Korea Center for Global Industrial Supply Chain

문의

KOTRA 글로벌공급망실
한국무역협회 동향분석실

gvc_monitoring@kotra.or.kr
gvc_research@kita.or.kr



메일 구독(수신) 신청



카카오톡 채널 구독

주관기관



kotra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한국무역협회



한국기계산업진흥회



에너지경제연구원

협력기관



한국디스플레이산업협회



한국로봇산업협회



한국바이오협회



한국반도체산업협회



한국비철금속협회



한국석유화학협회



한국섬유산업연합회



한국수입협회



한국자동차산업협회



한국전자정보통신산업진흥회



한국자동차산업협회



한국배터리산업협회



한국정밀화학산업진흥회



한국철강협회



한국항공우주산업진흥협회



전략물자관리원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한국가스공사



한국광해광업공단



한국석유공사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산업연구원

본지의 내용은 산업부의 공식 견해가 아님을 밝힙니다.